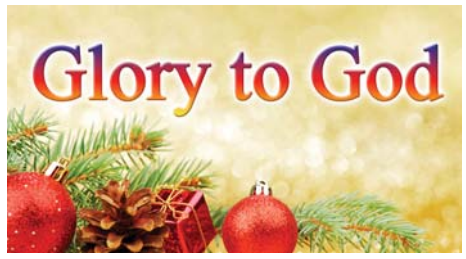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권능을 보다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본격적인 역사를 목도한 2014년,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성도들의 마음에는 감사와 감동이 넘친다.

02 생명의 말씀
감 사
영혼이 잘되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며,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으로 뜨겁게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03–04 송년특집
"2014년,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올 한해 성령의 역사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월별 12대 뉴스를 통해 그 은혜를 되새겨 본다.



만민뉴스
제666호 2014년 12월 2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4년 성탄 점등식'이 12월 19일 저녁 9시 50분, 주님 탄생을 축하드리는 수천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GCN 방송 생중계로 있었다. 전날까지도 매서운 영하의 추위가 계속됐으나 이날 행사는 영상의 포근한 날씨 속에 진행됐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드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니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신속히 변화되기 위해 더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사랑의 열매, 재창조의 역사를 베풀다

콩고민주공화국 주지사의 기도 요청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등

만민의 성도들에게 2014년은 많이 울고 많이 웃는 해였다. 목자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깨달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 사랑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밀려와 하염없이 눈물짓게 했으며 때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웃음 짓게 했다.

2014년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14), '사역'(행 19:12), '빛나는 성전'(계 21:2), '재창조의 역사'(창 1:3)를 교회 기도제목으로 주셨고, 이를 위해 성도들은 목자와 마음을 같이해 불같이 기도해 왔다.

그 결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연초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태아가 정상아로 태어나고, 태중 아이의 성별이 바뀌는 등의 여러 역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만민 하계수련회 첫째 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성령의 대폭발로 역사돼 수많은 사람이 온갖 질병을 치료받았다. 콩고민주공화국 에쿠아퇴르 주의 세바스찬 임페토 팡고 주지사의 기도요청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해 준 뒤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 바이러스의 진행이 멈췄고 11월 15일에는 종식됐음이 공식 선포되기도 했다.

또한 올 한해도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은 더욱 활발히 진행됐다.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많은 사람이 치료와 응답, 문제 해결을 받는 역사를 체험했으며, 해외 곳곳에서 만민의 주의 종들을 초청해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이러한 만민의 손수건 사역을 위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목자와 하나 된 영적 장수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빛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열두 기초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영과 온 영의 마음을 이룬 성도들의 수가 채워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재정의 축복이 들어와 가나안 성전을 건축하고, 더 나아가 정하신 때에 대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세계정세나 주변 모든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본의 소리로 천지 만물이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베풀어져 갖가지 기사와 표적은 물론, 죽은 영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마음과 근본까지 진리로 변화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들이 나와 영의 평준화가 이뤄졌다.

이러한 크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며 12월 28일에는 사무연회가 열린다. 2014년 우리 교회가 받은 한없는 축복의 이면에는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참 사랑의 표증을 보이신 목자의 끝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에 성도들은 감사해 하며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대망의 2015년에는 더욱 뚜렷이 제시되는 온 영의 흐름을 타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가나안 성전, 대성전 건축을 위해 한 마음으로 더욱 힘차게 정진할 것이다.

한편, 12월 31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송구영신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기도제목 '영광'(학 2:9), '열매'(살전 5:23), '아름다운 성전'(계 21:10~11), '재창조의 권능'(창 1:3)과 함께 개인 기도제목을 위해 축복기도를 받는다.

감 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뉘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꼬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106:1~3)

●●●

한 해 동안 '내가 시행하리라'는 축복의 말씀 가운데 지켜 주시고 축복하시며 계획하신 섭리를 다 이루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의 향을 올려야 하는 조건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영혼이 잘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알곡 성도로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병약하면 오래 살지 못하듯이,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구원받을 믿음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농부가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는 것처럼, 인간 경작을 마감하는 추수 때도 말씀대로 순종한 참 자녀들은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와 같은 신자들은 지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므로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영혼이 잘되고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과 마음의 할례를 알지 못하므로 죄를 버리려고도 하지 않지요. 이런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혼이 잘될 수 없으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말씀을 듣고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 경작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기에 말씀에 순종해 참 자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천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처소를 침노해야 함을 깨달았기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땅엣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엣것 곧 천국만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골 3:1~2). 따라서 영혼이 잘될 수 있도록 진리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2. 믿음 성장하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밝히 알려 주시며 때를 좇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분별하지 못해 주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하며 기도하고 사명 감당한다 하여 "나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요. 하지만 시험이 오면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며 믿음의 분량이 잘 드러납니다. 감사하지 못하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자존심을 세우며, 자기를 고집하고 주장하며 변론하는 모습이 발견되지요. 물론 연단받는 순간에는 마음을 찢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해야만 마음 깊이 심겨져 있던 비진리를 버리고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며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밝히 아시며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또한 주님과 성령께서도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간절한 중보기도를 올려 주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모든 연단을 오직 감사함으로 받으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걸음마 연습을 할 때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걷도록 지켜보며 넘어질 때도 스스로 일어나도록 놔둡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를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도 섬세하게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3.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 삼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해 범죄하며 곤고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다시 회개하고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며 다시 힘을 내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돼 진리를 알고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행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므로 회개하기도 어렵고 혹시 회개해 간신히 구원은 받는다 해도 좋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죄사함의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막힌 담이 아무리 크다 해도, 구원받기조차 쉽지 않은 처지에 있다 해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긍휼의 문을 열어 주셨지요.

이렇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소망을 회복해 주시고 낙오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부지런히 상급을 쌓아 가면서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보여 주었음에도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사랑의 간구를 올림으로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 떼들을 일가친척이나 가족보다 더 소중히 돌보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참믿음을 갖지 못하고 범죄하는 양 떼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구했지요. 어찌하든 사망에서 건져내고 한 영혼이라도 더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생명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지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이 사함받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얻은 분들은 누구보다 더 진한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의 열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한날한시도 잊지 말고, 날이 갈수록 더욱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 감사한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으로 변화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2014년을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전 세계 만민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만민뉴스가 2014년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14)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재창조의 역사'(창 1:3)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월별 12대 뉴스를 선정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1월 사랑의 표증,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권능의 역사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은 각각 국내외 성전에 모여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며 목자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2014년을 맞았다. 1월 말에는 설 만남을 통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뤄야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새기며 영적 성장을 위해 전력질주를 시작했다.

그 결과 4년에 걸친 목자의 희생과 사랑이 열매를 맺어 온 영의 사람 8명, 영의 사람 191명이 탄생했으며, 앞으로도 수백 명의 영의 사람이 나오고 수천 명의 믿음의 반석을 이룬 성도들이 나와 목자를 중심으로 섭리를 이루며 이전보다 더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2월 성경 정독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해진 성도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평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 읽기를 강조해 왔다. 그리하여 매일 성경 1장 이상을 읽고 성구를 외우는 것이 생활화됐으며 매년 '말씀퀴즈대회'를 개최해 꾸준히 암송하며 양식삼고 있다.

특히 설 만남 이후 성도들은 '성경 정독'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성경 66권을 소리 내어 읽으며 그 안에 기록된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신 내용들을 노트에 적어 기도함으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며 마음을 진리로 이뤄갔다. 이로 인해 하나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영혼이 잘됨은 물론 치료와 응답의 시간이 됐다.

3월 성도들의 심금을 울린 베스트셀러 『고백』 책자

부활절을 앞두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아흔두 번째 저서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목자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눈물 젖게 하며 가슴 깊이 사랑을 새기게 했다.

이 책은 인생들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특히 주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그리워하며 생명 다해 성도들을 사랑하는 저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 있다. 『고백』은 교보문고 6주 연속 종교부문 종합베스트셀러에 올라 화제가 됐으며, 성도들의 요청으로 중국어 간체와 미니북으로도 발간됐다.

4월 영의 평준화를 이루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개척 때부터 놀라운 권능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다.

특히 2010년부터 시작된 제3도약기에는 목자의 희생을 통해 허락하신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믿음의 반석'(롬 12:3), '영'(요 4:24), '온 영'(히 10:22)을 이루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며 믿음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셨다. 그 결과 2014년 4월, 부활절을 맞는 시점에는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영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영의 평준화를 이루었으며, 4월 25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특별기도가 있었다.

5월 사람의 '영혼육'에 대해 밝힌 WCDN 콘퍼런스

의학으로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입증하는 초교파 기독의사들의 모임인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이 2014년 5월, 제11회 콘퍼런스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가졌다. 이 소식은 로이터 통신, AFP 통신, 비즈니스 와이어 등과 미국 블룸버그 비지니스 위크 등 여러 매체에 의해 보도됐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치료의 역사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의학적 접근이 이뤄져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기독교가 침체된 유럽에 영적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다.

6월 목자의 마음을 깨우쳐가는 일꾼들과 성도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희생과 헌신, 사랑의 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한 번의 죄 사함의 시간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6월 초부터 가나안 성전 관련 일꾼들을 비롯해 모든 주의 종과 레위족, 일꾼들과 성도들은 목자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우쳐가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섭리를 이뤄가는 시간이 됐다.

또한 2000년대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개최된 해외 연합대성회를 생생한 증언으로 되짚어 보는 GCN 방송 프로그램 '회상'을 통해 참믿음의 의미와 영혼 향한 목자의 진한 사랑을 되새겼다.

7월 신앙의 궁극적 푯대, 온 영의 흐름을 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11년 7월 전국 기관장교육을 통해 '믿음의 반석'(롬 12:3)에 서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을 통해 악이 없는 '영'(요 4:24)의 마음을 이루는 길을 알려주었다. 2013년부터는 영의 사람이 결여와 부족을 채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영의 마음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왔다.

특히 2014년에는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케냐 등 23개국에서도 참석해 신앙의 궁극적 푯대인 '온 영'(히 10:22)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정진하고 있다.

8월 사랑과 권능의 파노라마 '만민 하계수련회'

8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2014 만민 하계수련회' 첫째 날 교육 시에는 시종 은혜의 단비가 내렸다.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말씀을 전하는 강사 이재록 목사의 모습에 성도들은 큰 사랑을 느끼며 미동 없이 경청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이어진 은사집회 시 성령의 대폭발로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성도가 온갖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아 영광 돌렸다. 이 밖에 최상의 날씨 가운데 진행된 체육대회, 목자와 함께 아름다운 찬양의 향을 올린 캠프파이어 등으로 천국 소망이 넘쳤다.

9월 만민선교원, 아동·학생주일학교 영재 교육 실시

주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미래의 영적 장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되기 시작했다.

만민선교원(원장 황재희 전도사)과 아동주일학교(교장 김현진 전도사), 학생주일학교(교장 이재정 전도사)에서는 주 안에서 마음껏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꿈과 비전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 교회의 영재 교육은 만민의 2세들에게 영육 간에 겸비한 하나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가르침에서 출발한 것이다.

10월 교회 창립 32주년 공연 '초대장'과 '목자의 성' 3D 영상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풀이받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천국' 설교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민찬양'을 통해 날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는 듯한 행복을 느끼며 신앙생활하고 있다.

특히 교회 창립 32주년 축하공연 '초대장'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연회에 초대받은 듯한 감동 속에 진행돼 국내외 1만여 자협력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더욱 뜨거워졌다. '목자의 성' 1층과 2층 사이 3D 영상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사모함을 더해 주었다.

11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손수건을 통한 사역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가 오늘날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연중 내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행 19:11~12).

11월만 해도 파키스탄, 중동, 이스라엘에서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가 열려 많은 사람이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외에도 올해 러시아, 미국, 벨기에, 일본,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손수건 집회로 영광 돌렸으며, 1만여 자협력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각처에서 손수건 사역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12월 GCN 방송, KT 올레TV 882번 런칭

12월 25일,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뜻깊은 성탄절을 맞아 전 세계 영혼을 위한 순수기독방송 GCN 방송이 KT 올레TV 882번 런칭으로 화제가 됐다.

별도의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KT의 넓은 방송망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HD 기술로 제작된 프로그램만 엄선해 편성하므로 기존 GCN 방송과는 별도의 채널이며, GCN 방송의 생명력 넘치는 영적 프로그램을 깨끗하고 선명한 고화질로 볼 수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